

2017년 6월 18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가해)

제1940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 미사 전례

- 제1독서 : 신명 8,2-3.14-16
- 화답송: (악보 참조)
- 제2독서 : 1코린 10,16-17
- 복음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복음 : 요한 6,51-58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성경의 인물 43 믿음의 사람, 나아만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이었다. 그는 용맹스럽고 충직한 신하였다. 그런데 그는 불행히도 나병환자였다.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데려와 몸종으로 일을 시키는 어린 소녀가 한명 있었다. 어느 날 어린 하녀는 주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다. “주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파리아에 예언자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엄청 용하신 분입니다. 주인님의 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정말이냐? 그 말이.”

물에 빠진 사람이 갈대라도 움켜잡는 심정으로 어린 하녀 말에 솔깃한 나아만은 입궐해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다. 나아만의 말을 들은 왕은 “정말, 그 소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느냐. 자,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고 금과 은, 옷을 싸 줄테니 병을 고치고 돌아 오거라.” “예, 황송하옵니다.”

그 길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 시리아 왕의 친서를 내밀었다. 그 친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중략... 본인의 충직한 신하 나아만에게 이 편지를 들려 귀하게 보냅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친서를 읽고는 옷을 찢으며 화를 냈다.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인가? 분명히 나병환자를 고쳐내라고 때를 쓰는 건 전쟁을 일으키려는 속셈이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 예언자는 전갈을 보냈다. 성서에 자주 옷을 찢는 것이 언급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관습으로 애도와 슬픔의 표시다. 또 먼지나 흙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엘리사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엘리사 드림.”

드디어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 집에 당도했다. 엘리사는 사람을 시켜 말을 전했다.

“요르단 강물로 가서 강물에 일곱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요.” 예언자 얼굴도 못 본 나아만은 화가 치밀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적어도 나에게 손을 얹고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니. 내가 목욕이나 하자고 이 먼 길을 고생스럽게 왔나. 나 원 더러워서.” 크게 화가 난 나아만이 발길을 옮기자 부하들이 막았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르단강에서 몸이나 씻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밀저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듯했다. 일러준 대로 하니 정말 나병이 낫고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돌아와 감격해서 말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무엇이요?” “약소합니다. 병을 고친 것이 너무 고마워 드리는 촛지입니다.”

“안됩니다. 야훼께서 하신 일을 내가 생색내고 선물을 받을 순 없습니다.”

“그래도 섭섭해서...”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예언자가 내린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 판단을 버리고 하느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기에 치유 받을 수 있었다. 또 훌륭한 장군에게 훌륭한 부하가 있게 마련이다. 부하들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이 나아만에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지만 한사람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유일하게 치유를 받았다. 하느님의 은총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내린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평화신문 2000년 5월 7일 허영엽 신부, ‘성서의 인물’)



아버지날 축하드립니다.
아빠 힘내세요!

미주지역 마산교구 사제 연수

- 기간: 2017년 6월 19일(월)~22일(목)
- ※ 6월 21일(수)저녁 7:30미사는 있습니다.
- ※ 6월 22일(목)저녁은 말씀의 전례로 봉헌합니다.

북미주 천주교 한인 수녀 연합회 피정 및 휴가

- 피정기간: 2017년 6월 12일 ~ 6월 22일
- 휴가기간: 2017년 6월 23일 ~ 6월 27일
- 참가하시는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자 영성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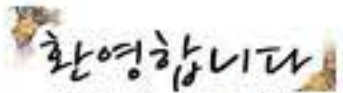
- 일시: 6월 28일(수)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소 공동체 가정 반 미사(오후 8:00시)

6월 27일(화)	7월 11일(화)	7월 14일(금)
1구역 1반	2구역 1반	3구역 1반

장례 안내

- 망 자: 故장인택(아브라함) 향년 50세
- 연 도: 6월 21일(수) 저녁 7:30미사 후.
- 장례미사: 6월 24일(토) 오전 10:00
- 유 가 족: 미망인 여상은(케틀)
여지홍(안드레아)의 사위(2구역1반)



- ♥ 노승균(스테파노), 희영(첼리나)가족
- LA교구, 성 가브리엘 성당에서, 4구역 5반.

남가주 남성, 여성, 제43차 꾸르실료

- 여성: 7월 6일(목)~ 9일(주일) 3박4일
- 남성: 7월 20일(목)~23일(주일) 3박4일
- 문의: 박애실(헬레나) ☎213-500-9393

감사 합니다

- 2017 경로잔치를 위해 물품과 현금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과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故 현숙희(카타리나)의 연도, 장례예절에 함께 하시어 기도해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 故 손경찬(야고보)의 연도, 장례미사에 함께 하시어 기도해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캠프 2017

- (Jr High and High School Summer Camp)
- 일시: 2017년 7월 6일(목) ~ 9일(주일)
- 대상: 6th - 12th Grade. • 장소: Colby Ranch
- 참가비: \$155.00 <타 성당 \$185.00>
- 문의: 이유진(그라시아) ☎818-414-7872

성삼 한국학교 교사 모집

- 가톨릭 신자이며, 경험 있으신분.
- 아이들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하실분.
- 문의: 박미향(안토니아) ☎213-507-1802
노 아델리나 수녀님 ☎323-828-8876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6월 11일	\$6.30	누계	\$805.52
--------	--------	----	----------

전 례 봉 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 일	해설		독서
	금주	07:00	박 안토니아	2구역	6구역		수	고 세실리아	황금 궁전 Pr
		11:00	조 프란치스코	4, 5반	2반		목	이 다니엘라	성령 기도회
	다음주	07:00	박 로사	2구역	6구역		금	강 올리아나	금요 성경반
		11:00	이 다니엘라	6반	3반				

중식봉사	금주	Father's Day <중식 없음>			다음주	3구역 1반		
	금주	단체명	시간	장소	다음주	단체명	시간	장소
		꾸리아	12:45	성당		울드레야	12:30	별관

우리들의 정성 (2017. 6.11 현재)

교무금	5,485.00	교무금 / 건축헌금 봉헌(32명)	
주일헌금	2,253.00	권영주, 김군자, 김길중, 김복선, 김애영, 김윤욱, 김재권, 김정박, 김진정, 김진홍, 독고근, 민병돈, 박경조, 박기중, 박일주, 박진우, 박효신, 손종수, 신순자, 오영수, 우순남, 은희정, 이강현, 이명자, 이석환, 이종구, 이현우, 정종문, 주수경, 차봉철, 한창희, 허일환,	
건축헌금	150.00		
광고비	1,050.00		
감사헌금	20.00		
2차헌금	1,611.00		

봉사차레
안내

단체모임

본당살림